

June 2026
No. 401

INSS

전략보고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평가와 시사점

유현정
yhj817@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국제질서 변화 속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 III.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협력 구도
- IV. 미중 경쟁 심화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전망
- V. 정책적 시사점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평가와 시사점

I. 문제 제기

II. 국제질서 변화 속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1.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정체성
2.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경제적 부상

III.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협력 구도

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목표
2.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메커니즘

IV. 미중 경쟁 심화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전망

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기회와 도전
2. 트럼프 시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평가와 시사점

저자 | 유현정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질서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미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 등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며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과 중국식 담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갈등 심화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반미·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 내부의 이해관계 차이와 대중국 경제 의존에 대한 우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브릭스(BRICS), 경제안보, 공급망, 일대일로(BRI)

I 문제 제기

- ‘글로벌 사우스’가 글로벌 지정학에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중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핵심분야로 등장
 - 중국은 2023년 중반부터 자국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全球南方)’의 일원이라고 주장¹하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적극적인 매력공세 전개
 -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관계를 경제 분야를 넘어 전략적·지정학적 협력으로 확대 시도
- 미중 전략경쟁은 중국의 對글로벌 사우스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등장
 - 중국의 전기차 생산기업(BYD)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전쟁 여파로 중국 투자유치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멕시코에 대해 ‘투자 동결’을 결정²
 -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측의 압박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 탈퇴를 결정³하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국 기업의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한 파나마에 대해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대가’를 경고
 - ※ 2026년 1월, 파나마 대법원은 중국측 항만공사가 1997년부터 누려왔던 파나마 운하에 위치한 2개 항구에 대한 운영권 계약을 무효화⁴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해 무력 침공을 단행하며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을 도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변화에 주목할 필요
 - 미국이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에서는, 중국과의 정면 대립을 회피하는 대신 ‘서반구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에 집중⁵

1 “China will always be member of “Global South”, says Wang Yi,” Xinhua, 2023.7.26.; “李希出席“77国集团和中国”哈瓦那峰会并致辞,”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9.16.

2 “China ‘congela’ inversiones en México... y mira hacia Perú: ‘Es más receptivo que el gobierno mexicano,’” El Financiero, 2025.3.28.

3 “중국, 파나마 일대일로 탈퇴 선언에 “美 압박에 협력 파괴,” 「연합뉴스」, 2025.2.8.

4 “Panama voids Hong Kong-based firm’s canal port contracts,” BBC, 2026.1.30.

5 Henry Ziemer and Ryan C. Berg, “Assessing the Impact of China-Russia Security Coordin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SIS, 2026.4.29.

- 2026년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등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
- 미중 경쟁구도 심화에 따른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II 국제질서 변화 속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1.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정체성

-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은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닌 국가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 글로벌 사우스는 특정한 회원국·전략목표·제도적 구조를 가진 국제기구나 국가집단이 아니라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발전수준을 공유하고 서방 중심의 국제체제 내에서 소외되어 왔던 개발도상국의 집합체를 의미⁶
 - 종래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서방 선진국들을 지칭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제3세계’, ‘개발도상국’ 등으로 불렸으나 각각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⁷
- 국제사회는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적으로 개념 규정하기보다는 이들이 가지는 집단적 정체성에 주목
 - 글로벌 사우스는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성장에 대한 열망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부족과 서방 패권에 대한 저항 △오랜 식민지배 역사와 강한 독립의식 △글로벌 지정학에서의 비동맹주의 등을 특징으로 함⁸

2.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경제적 부상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꾸준히 정치적·경제적 입지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 독자적 세력화에 실패
 -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1955), 개발도상국 연합체로 결성된 ‘G77(1964)’ 등을 통해 세력화를 추진하였으나 지정학적 영향력 열세, 남반구 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집단적 협상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 봉착

6 欧阳康·李大鹏, “践行全球治理倡议：以大金砖机制协同全球南方推动全球治理更加健康发展,” 爱思想, 2026.3.27.

7 전재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과 국제 질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vol. 207, 2024.1.

8 Marcin Przychodniak, “China Embracing a Global South Strategy,” PISM, 「BULLETIN」 NO. 43 (2351), 2024.3.26., p.1.; Zha Daojiong, “China’s global south dilemma: Ally, leader or outsider?,” ThinkChina, 2025.8.1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각성(Awakening)⁹⁾이 본격화되었고 중국은 이를 위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제공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국제질서가 미국 단극 체제에서 강대국간 전략경쟁체제로 전환되자 글로벌 사우스의 대외정책 향방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
 - 글로벌 사우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환경·기후문제 △지정학적 갈등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들의 책임을 강대국에게 전가하며 기존 G7 중심 거버넌스에 대한 불만 고조
 -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는 2009년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대외적 발언대 역할을 담당. 이와 함께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 구상'은 글로벌 사우스에게 물질적 기반을 제공
-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 193개 UN 회원국 중 130개국 이상이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며 이러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발언권 강화
 - 남반구 국가들은 세계 GDP의 약 39%, 세계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잠재적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¹⁰⁾
 - ※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산출한 글로벌 사우스 GDP 비중은 2005년 45.66%에서 2025년 60.57%로 증가¹¹⁾하였으며 세계 총무역량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무역량 비중 역시 2000년 약 30%에서 2023년 약 50%로 급속히 증가¹²⁾

9 Oleg V. Stoletov, "THEMATIC DOSSIER: China's Global Strategy," Vestnik RUDN,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4 No. 3, 2024.3.24., pp.331~333.

10 Xinyue Hu, "China's Global South Strategy: Twice the Efforts for Half the Result?," RSIS, IDSS Paper, No. 108/2024, 2024.12.20., p.1.

11 IMF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PPSH@WEO/OEMDC/ADVEC/WEOWORLD/EEQ/EUQ/GBR>

12 顾清扬, "China's Global South Strategy: A New Growth Frontier,"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glonal-is-asian, 2025.5.16.

- 기존의 소극적·중립적 외교에서 벗어나 독자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 수행
 - 글로벌 사우스 협력체는 꾸준히 외연을 확대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도는 G20 의장국으로서 포용적인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연합’을 G20 회원국으로 승인
 - 브라질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플랜’을 제시한 바 있고 파키스탄은 이번 이란 전쟁의 종전 협상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 수행

III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협력 구도

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목표

-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글로벌 영역에서 중국의 리더십 기반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다면적 역할을 수행
 - 중국은 남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하고 국제 안보질서를 재편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중국은 자국의 취약한 내수시장, 서방의 무역제한 강화, 미국과의 긴장고조에 직면하여 남반구 국가들의 지지를 결집함으로써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안보·이념적 도전을 견제

가.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을 통한 서방의 영향력 견제

- 중국은 탈냉전 이후 글로벌 의사결정권 분산을 위한 다극적 국제질서를 모색
- 글로벌 사우스는 비동맹주의와 외교적 자율성 강조,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어 민감한 글로벌 사안에 대해 미국·서방과의 다른 의사결정 가능. 이들과의 협력은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중국에게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판단¹³
 - ※ 2022년 유엔총회에 회부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난 결의안’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 배상요구 결의안’에 대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각각 35개국과 73개국이 기권하며 서방과 다른 입장을 표명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국제질서 변혁을 위한 핵심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2024년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집단적 부상’을 강변¹⁴

나. 대안적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식 담론 확산

- 글로벌 사우스의 한계와 대안 질서 제안
 - 글로벌 사우스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공유하고 있으나 대안 질서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상이하어 제도·규범·가치 등에 대한 공통된 인식 결여
 - 중국은 자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모델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한편, 2020년대에 들어서며 경제·안보·문명·거버넌스 등 총 4개 분야에서 대안 질서를 제안하고 자국의 체제와 담론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

13 이동규·김지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현황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3., pp.8~9.

14 “Combining the Great Strength of the Global South to Build Together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10.24.

- ‘4개 이니셔티브’는 기존 질서의 전면적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부분적·선별적 대안 질서를 의미(개별 이니셔티브의 상세는 <표 1> 참조)
 -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건설’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물질적 토대 마련을 위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I)’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정신적 합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를 차례로 제안
 -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I)는,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패권체제가 소수국가의 이익 독점을 초래하여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의 공동발전과 보편적 번영증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제안

〈표 1〉 ‘4대 이니셔티브’에 함축된 중국의 미래비전¹⁵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건설		
이니셔티브	기 능	주요 내용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全球发展倡议]	건고한 물질적 토대 마련	·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 · 협력을 통한 발전·상호이익을 통한 윈-윈 달성 · 6대 핵심원칙 △개발우선 △사람중심 △포용적·공평한 개발 △혁신주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 △행동지향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全球安全倡议]	안전한 환경 구축	· 2022년 보아오 포럼 ·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촉진 · 6대 실천지침 △세계 평화·안보 공동수호 △주권·영토 보전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유엔헌장 준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지역·글로벌 전통·비전통 안보 공동수호

15 李景平·李永来, “四大全球倡议的内在联系及其世界意义,” 爱思想, 2026.3.18.; 刘志刚, “全球倡议谱系: 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系统性方案,” 爱思想, 2026.3.26.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이니셔티브	기 능	주요 내용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 [全球文明倡议]	정신적 합의기반	· 2023년 공산당-세계 정당간 고위급 대화 · 문명의 다양성·문명간 평등과 포용성 강조 · 4대 옹호 △세계 문명의 다양성 존중 △인류 공동가치 증진 △문명의 계승과 혁신의 중요성 △국제 문화 및 인적교류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 [全球治理倡议]	제도적 보장	·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 플러스 정상회의 ·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 결함 시정 · 5대 핵심원칙 △주권평등 수호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사람중심 접근 △행동지향적 접근

-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는, 식민지 경쟁으로 대표되는 서방의 팽창주의와 충돌 기반 패권추구는 세계적 분열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공유된 안보체제 구축을 제안
-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는, 서방의 오랜 문명적 위계질서와 문명적 우월주의는 다양한 문명간 대등한 대화와 교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문명간 평등, 상호 학습, 대화와 포용성을 바탕으로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는, 서방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재부상하면서 국제법에 의한 지배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폭넓은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협의·공동 기여·공동 이익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 중국은 '4대 이니셔티브'에 내포되어 있는 반미·반서방 정서를 다양한 협력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에 확산 시킴으로써 중국식 담론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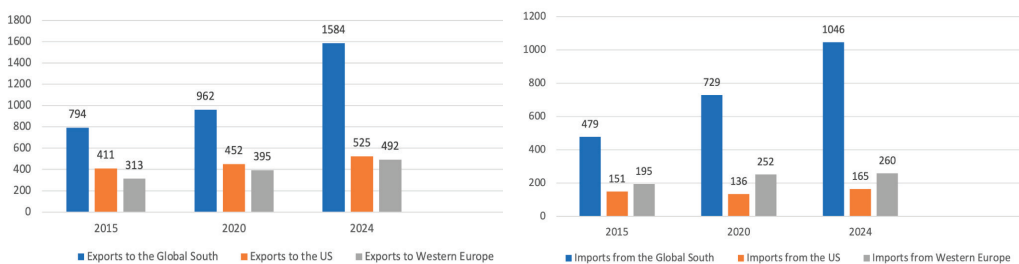
다. 경제안보 협력

- 글로벌 사우스의 거대시장은 중국 경제의 '과잉생산(overcapacity)' 문제를 해소
 - 중국의 내수부족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는 국내 경제에 '내권(內卷)' 현상을 야기하여 국내기업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초래

※ 내권(內卷)이란, 혁신 없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가격경쟁을 의미¹⁶

- 미중 전략경쟁과 서방의 무역규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과 서방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 2024년 기준, 중국의 대글로벌 사우스 수출액은 미국과 서방국가에 대한 수출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글로벌 사우스 무역흑자는 중국의 총무역 흑자액 중 54%를 차지
-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수출은 2015년 35%에서 2024년 44%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비중은 18%에서 15%로 감소(<그림 1> 참조)¹⁷
- 특히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는 대량의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큼



<그림 1> 10년간 중국의 수출입 현황(2015~2024)¹⁸

라. 대만 이슈 등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도모하고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도록 유도¹⁹
- 중국은 상대국과의 국교수립을 위해 그 전제조건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과 대만과의 국교단절을 요구. 이로 인해 현시점 대만의 정식 수교국은 12개국에 불과

16 吳明澤, “中國「內捲」原因與「反內捲」政策之效果評析,” 經中華經濟研究院, 《經濟前瞻》222期, 2025.11.

17 Chang, C. et al., “China Inc. heads to Global South in the age of tariffs,” S&P Global, 2025.8.19., p.4.

18 Jeremy Garlick and Anja Senz, “China’s increasing influence in the Global South: what does it mean for the EU?,” EuroHub4Sino, Policy Paper 2026/1, 2026.1.16., p.8.

19 허재철,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25-11, 2026.2.2., pp.76~81.

- 파나마는 2017년 6월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종료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비상환 원조’를 제공하고 무역·금융·인프라 등 부문에서 19개의 협정과 양해각서 체결
- 중국은 올해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는 에스와티니 왕국은 수혜국에서 제외 조치
-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한 ‘당근과 채찍’의 이중 전략은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에서 레드라인 관리를 위해 동원될 가능성 불배제

마.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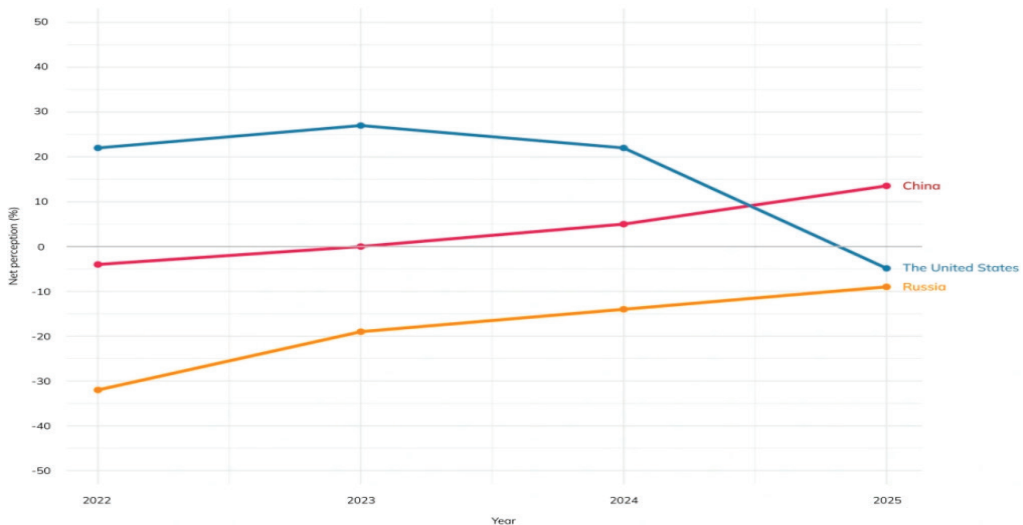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담론과 비교적 일관된 외교전략을 유지하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매력공세 강화
 -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제안한 ‘구동존이(求同存異)’와 ‘평화공존 5원칙’ 및 마오쩌둥이 주창한 ‘3개 세계론(三个世界的理论)’은 현 중국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이론적 기초로 인식되고 있음²⁰
 - 2025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중국-중남미·카리브 공동체’ 장관급 회의에서 지역국가에게 9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발표²¹하고 6월에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53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 계획을 발표²²
-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미국과 서방의 글로벌 이미지 악화에 편승하여 ‘자유무역 옹호자’로서의 중국 이미지 제고
 - 2025년 96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6개국 중 76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³

20 傅小强, “四大全球倡议的深刻内涵与时代价值,” 爱思想, 2026.3.4.; Alice Ekman, “China’s turn towards the ‘Global South’: Europe is not Beijing’s priority,” EUSS, 2025.7.17.

21 “Xi Jinping Holds Talks with Brazilian President Luiz Inácio Lula da Silv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5.13.

22 “China says it will remove all tariffs on African exports to boost trade,” Reuters, 2025.6.13.

23 Frederick DeVeaux, 『Democracy Perception Index 2025』, Nira Data, 2025.5.13., p. 41.



〈그림 2〉 2022~2025년간 강대국에 대한 인식변화

2.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메커니즘

-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체제·이념·경제발전 수준 등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확장기조에 기초
 - 중국은 (1)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 플랫폼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 (2)중국 중심의 허브 앤 스포크 모델 구축(ex. 일대일로, 지역 협력체), (3)UN 등 대규모 다자기구 활용 등 전방위적 방식을 동원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접근
-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확장전략 중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 협력체의 외연확장을 통한 ‘글로벌 조직화’에 있음
 -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6년 결성된 ‘상하이 5개국(Shanghai Five)’을 전신으로 하며 우즈베키스탄 가입(2001) 이후 현 명칭으로 재편
 - 동 기구는, 냉전 종식 이후 구소련 연방에서 분리·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지속적인 국경분쟁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지역 협력체’ 성격으로 출범하였음²⁴
 - 시 주석 집권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2017)·이란(2023)·벨라루스(2024)가 동 기구에 가입하면서 그 영향력을 남아시아·중동·동유럽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협력체로 조직화. 2022년에는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 추진²⁵

²⁴ Jeremy Garlick, “Beyond Central Asia: the ever-expanding influenc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EuroHub4Sino, Policy Paper 2025/2, 2025.2.21., p.2.

²⁵ “Turkey’s Erdogan targets joining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media reports say,” Reuters,

- 2009년 출범한 브릭스는,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입한 이후 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UAE 등 4개국이 신규 가입(2024)하고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합류하면서 남미·중동·아프리카·동남아로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며 브릭스 플러스(BRICS+) 체제 구축
-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사우스와의 지역별 협력체 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협력체간 연계를 모색(지역별 협력 메커니즘 상세는 <표 2> 참조)
 -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역 리더십을 강화한 중국은 WTO 가입(2001)으로 국제질서에 적극 편승하며 지역별 협력체 구축을 본격화
 -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회의(FOCAC)를 시작으로 하여 중동·태평양 도서국·중앙아시아·중동구 유럽·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과의 협력체 설립
 - 지난해 5월에는 ‘제1차 중국-아세안-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경제 건정성 강화를 위한 국제질서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 협력체간 연계를 시도²⁶
- UN 등 대규모 다자간 기구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핵심 무대로 기능
 - 중국이 UN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유엔기구에 대한 중국의 분담금 비중은 2013년 총 분담금의 4.8%에서 2024년 14.9%로 확대되며 유엔 정기 예산 분담금 2위국으로 부상²⁷
 - 134개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G77+중국’을 비롯하여 UN 산하의 남남협력지원기금·남남인권포럼 등을 설립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 담론 홍보
 - ※ 2017년 남남인권포럼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²⁸은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각 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권’과 △민주주의·자유 등 가치보다는 ‘생존권’을 우선적 권리로 재확인

2022.9.18.

26 “China, ASEAN, GCC forge innovative trilateral cooperation amid global risks,”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5.28.

27 Hoang Thi Ha and Pham Thi Phuong Thao, “Re-ordering the World: China’s Global South Focus versus the Ally-centric Approach of the US,” ISEAS, Perspective 2024 No. 90, 2024.10.29., p.4.

28 “首届“南南人权论坛”《北京宣言》,” 新华网, 2017.12.8.

〈표 2〉 중국-글로벌 사우스간 협력 메커니즘 주요 내용

협력 메커니즘		주요 내용
글로벌 협력체	상하이협력기구(SCO)	· 2001년 창설 · 중앙아시아 안보 협의체에서 글로벌 정치·안보·경제 등 복합 협의체로 성격 변화 · 벨라루스 가입(2024) 이후 10개 회원국·2개 옵저버국·15개 대화 상대국으로 구성
	브릭스(BRICS)	· 2009년 출범 · 신흥경제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으로 출범 · 인도네시아 가입(2025) 이후 10개 회원국·14개 파트너국으로 구성 · 회원국간 포괄적 협력을 목표로 '신개발은행'을 통한 금융지원과 '탈달러화' 추진
지역 협력체	중-아세안 지도자회의	· 1997년 출범 · 아세안 11개국(동티모르 2025년 가입)과 지역 안정·경제·보건 등 다분야 협력 논의 · 3차 회의 이후 중국은 국무원 총리가 참석
	중-아프리카 협력회의(FOCAC)	· 2000년 출범 · 중국과 아프리카 53개국(에스와티니 제외)으로 구성 · 3년마다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며 2024년 정상회의에서 '10대 파트너십 행동'을 채택
	중-아랍국가 협력포럼(CASCF)	· 2004년 출범 · 중국과 22개 아랍국가로 구성 · 무역·에너지 등 경제협력뿐 아니라 중동 분쟁·시리아 내전 등 역내 안보문제 논의
	중-태평양 도서국 포럼(C-PIF)	· 2006년 중-태평양 도서국 경제 발전 및 협력 포럼 설립 · 외교장관급 협력체로서 3차례(2021·2022·2025) 회의 개최 · 제3차 회의(2025)에서는 양자 관계 심화·하나의 중국 원칙 수호·기후 변화 및 안보 분야 협력에 중점
	중-중앙아시아 협력발전포럼(C+C5)	· 2012년 출범 · 경제·물류·에너지·문화 분야 협력을 목표
	중-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 포럼(C-CELAC)	· 2015년 출범 · 중국과 33개 중남미·카리브해 국가로 구성 · 하위 대화체로 농업·과학기술·비즈니스·인프라 및 인적교류 증진 포럼에 관한 포럼 운영 · 미국의 '서반구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남미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 발표
	중-중동유럽 협력포럼(C-CEE)	· 2012년 '16+1'체제로 출범 · 2019년 그리스 합류로 '17+1'체제가 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트 3국이 탈퇴(2022)하여 현재 '14+1'체제로 운영
다자 협력체	G77+China	· G77은 77개 개도국 주도로 창설(1964)되어 현재 134개국 참여 · 유엔 및 기타 플랫폼에서 협상력 강화와 공동의 경제 및 개발 이익 증진을 목적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 2017년 출범 이후 3차례(2017·2019·2023) 개최 · 2019년 행사에서 국제협력 강화, 일대일로 공동 건설, 공영 발전, '8개 행동안' 발표

자료: 기구 홈페이지 및 관련 문건을 기초로 저자작성

IV 미중 경쟁 심화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전망

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기회와 도전

-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기회와 도전'의 양면 효과
- (기회요인) 강대국 중심으로 보호주의와 기술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유인 증가
 - 미국의 징벌적 상호관세 정책, 기술규제, 해외원조 프로그램(USAID) 중단, 단호한 이민정책 등은 무역·기술·원조·일자리 부문에서 개발도상국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제한²⁹
 - 글로벌 사우스는 개발을 위한 가용 리소스를 찾기 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둘 가능성
 - 이란전쟁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로의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³⁰
- (도전요인) 미중 경쟁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글로벌 사우스의 내부 분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글로벌 사우스간 경제관계 불균형은 양자간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
 - 대부분의 남반구 국가들은 강대국 경쟁에 연루되는 것을 경계해 왔으며 미중사이에서 일방선택을 거부하며 중립외교를 견지
 - ※ 대표적으로, △인도는 SCO의 회원국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QUAD의 회원국이며,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은 브릭스의 '반서방 연대화'를 경계하며 일대일로 참여를 거부.³¹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주도의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함과 동시에 브릭스에도 가입을 신청
 - 미중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사우스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극체제의 한 축인 글로벌 사우스의 분열을 의미

29 David Lubin, "Will economic policy win China friends in the Global South?: The importance of trade 'rebalancing' for Beijing's strategic ambitions," Chatham House, Briefing Paper, 2025.9.

30 "US war in Iran: China casts itself as savior of SE Asia," Deutsche Welle, 2026.3.26.

31 Cobus van Staden, "Brazil's BRI Rejection a Setback for China," China Global South Project, 2024.10.30.

-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채, 불투명한 거버넌스, 환경문제 등으로 상대국과 마찰 심화
 - ※ 중국의 동남아 및 남미 무역파트너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저가의 중국산 수입품을 규제하거나 관세·반덤핑 관세·현지생산 의무화 등 다양한 통상조치를 시행³²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으로 안보 긴장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도 국경분쟁과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공세적 행보는 중국의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담론과 상충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우려 초래
-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적 마찰이 심화될 경우, 남반구 옹호자로서 중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공세적 외교 역시 기존 패권과 다를 바 없는 '새로운 형태의 패권'으로 인식될 가능성

2. 트럼프 시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전망

가. 정치·안보적 측면: 對글로벌 사우스 외교 수위 강화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기초한 현상변경 시도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평화수호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국식 담론을 전파하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
 - 중남미·중동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군사작전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 담론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켜 중국식 담론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공명할 수 있는 환경조성 가능
 - 중국은 베네수엘라·이란문제에서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과 평화회복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은 갈등을 만들고 중국은 질서를 관리한다'는 이미지 구축
 - 중국은 국제사회의 전쟁 피로감을 활용하여 '중국식 평화 중재'와 '비서방 다자질서' 담론 확대를 시도할 전망
- 중국은 현 국제질서를 '정의 대 부정' 구도로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반미·반서방 연대구축에 주력할 전망
 - 시 주석은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접견(4.14)한 자리에서 "세계가 '정의와 무력의 대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³³하며 중국을 정의의 수호자로 이미지화

32 Aya Adachi, "China's Overcapacity and the Global South: An Opportunity for the EU," Internationale Politik Quarterly, 2025.3.26.; Jackson Huang, "Can China lead the global south without changing its economic model?," ThinkChina, 2025.4.15.

33 "China's Xi meets Russian FM Lavrov, calls relations with Moscow 'precious,'" Aljazeera, 2026.4.15.

- 시 주석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면담(4.15)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단결을 지켜나갈 것”이며 “SCO, BRICS 등 다자간 메커니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³⁴

나. 경제협력의 측면: 위험도와 전략성을 고려한 차별 접근 전략

-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침공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
 - 중국은 약 200억 달러에 이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채권을 석유-차관 교환방식으로 상환받고 있었으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개발권을 미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채권 추심에 어려움 봉착
 - 2025년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약 140만 배럴/일(bpd) 수입하였고 이는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12%에 해당.³⁵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중국 수입원유의 약 4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통로
 - 중국은 2019~2024년간 중동에 총 89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항만 △정유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 △해수 담수화 시설 및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³⁶
 - 미국의 침공과 이란의 보복공격은 역내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³⁷할 수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전략 조정 불가피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무제한 확장 투자는 자제하되 각 지역의 위험도 및 전략적 중요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관리 중심의 협력에 주력할 전망
 - 그동안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협력은 주로 에너지·광물·인프라 부문에서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고위험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정치적 갈등 소지가 낮은 무역·통상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
 - 중남미 지역은, ‘서반구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과 정면충돌의 위험이 있어 새로운 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기보다 기존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데 주력할 가능성³⁸

34 “Xi Jinping Meets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i Lavrov,”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2026.4.15.

35 Erica Downs, “Where China Gets Its Oil: Crude Imports in 2025 Reveal Stockpiling and Changing Fortunes of Certain Suppliers, Including Those Sanctioned,”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2026.1.29.

36 “How does China view the US-Israeli war on ally Iran?,” RTÉ, 2026.3.15.

37 “For China, Billions of Dollars Are at Risk From a Widening War,” The New York Times, 2026.3.9.

38 “U.S. Blows Up China’s Latin America Ambitions With Maduro Ouster,” The Wall Street Journal, 2026.1.13.

- 중동 역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중국은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
 - ※ 중국은 중동 지역을 일대일로 구상의 전략적 중심지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³⁹ 에너지·인프라·무역 등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움
-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란전쟁 종전 후 역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가능성⁴⁰
 - ※ 중국은 중동 투자에서 전면적 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전쟁 과정에서 철수한 타국 기업의 자리를 중국 기업이 대체함으로써 종전 후 역내 경제 영향력 확대 도모

다. 글로벌 사우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국 경제구조의 전환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될 필요
 - ※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내수 확대를 발전전략의 기반⁴¹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의 국내경제 안정화뿐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 내포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중국식 발전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수치로 나타나는 ‘양적 성장지표’ 역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

39 Shihua Lu,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Maritime Infrastructure in the Middle East,”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5, no. 1, 2022, pp.55~73.

40 “Despite the war with Iran: Why don’t Chinese investments in the Middle East stop?,” *Jawlah*, 2026.3.28.

41 “중국경제원탁회의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수 확대를 발전 전략 기반으로,” *신화망 한국어판*, 2026.3.14.

IV 정책적 시사점

-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우리의 정치·경제적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가 전통적인 강대국 외교만 집중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활동공간이 제한될 가능성
 -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가 보유한 거대 시장과 전략물자 공급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
- 글로벌 사우스 국가별 차별화된 접근 전략 필요
 - 향후 미중 전략경쟁은 정면 대결보다는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영향력 경쟁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무제한 확장'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함
 - 글로벌 사우스는 정치·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지역별·국가별 관심사가 서로 상이. 우리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지역별 차별접근이 필요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별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우리 정부는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정치적 안정성 △위기 대응능력 △경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고위험/중위험/안정 국가로 구분하고 협력의 강도와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
- 친환경 녹색 에너지 산업 중점 육성 필요
 - 트럼프 행정부 임기동안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 견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원유·천연가스 수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할 필요
- 미국의 동맹비용 요구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맞추되 동맹의 틀 안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 모색
 - 이란 전쟁과정에서 미국은 수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의 동참을 촉구

- 미행정부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동맹비용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요구에 대해 독자적으로 군사적 조치에 나서기보다는 다자체제 내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맞추는 한편, 한미 양국간 합의된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기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참고문헌

- 전재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과 국제 질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vol. 207, 2024.1.
- 이동규·김지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현황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3.
- 허재철,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25-11, 2026.2.2.
- Alice Ekman, “China's turn towards the 'Global South': Europe is not Beijing's priority,” EUSS, 2025.7.17.
- Aya Adachi, “China's Overcapacity and the Global South: An Opportunity for the EU,” Internationale Politik Quarterly, 2025.3.26.
- Chang, C. et al., “China Inc. heads to Global South in the age of tariffs,” S&P Global, 2025.8.19.
- Cobus van Staden, “Brazil's BRI Rejection a Setback for China,” China Global South Project, 2024.10.30.
- David Lubin, “Will economic policy win China friends in the Global South?: The importance of trade ‘rebalancing’ for Beijing’s strategic ambitions,” Chatham House, Briefing Paper, 2025.9.
- Erica Downs, “Where China Gets Its Oil: Crude Imports in 2025 Reveal Stockpiling and Changing Fortunes of Certain Suppliers, Including Those Sanctioned,”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2026.1.29.
- Frederick DeVeaux, 『Democracy Perception Index 2025』, Nira Data, 2025.5.13.
- Henry Ziemer and Ryan C. Berg, “Assessing the Impact of China-Russia Security Coordin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SIS, 2026.4.29.
- Hoang Thi Ha and Pham Thi Phuong Thao, “Re-ordering the World: China's Global South Focus versus the Ally-centric Approach of the US,” ISEAS, Perspective 2024 No. 90, 2024.10.29.
- Jackson Huang, “Can China lead the global south without changing its economic model?,” ThinkChina, 2025.4.15.

Jeremy Garlick, "Beyond Central Asia: the ever-expanding influenc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EuroHub4Sino, Policy Paper 2025/2, 2025.2.21.

Jeremy Garlick and Anja Senz, "China's increasing influence in the Global South: what does it mean for the EU?," EuroHub4Sino, Policy Paper 2026/1, 2026.1.16.

Marcin Przychodniak, "China Embracing a Global South Strategy," PISM, 「BULLETIN」 NO. 43 (2351), 2024.3.26.

Oleg V. Stoletov, "THEMATIC DOSSIER: China's Global Strategy," Vestnik RUDN,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4 No. 3, 2024.3.24.

Shihua Lu,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Maritime Infrastructure in the Middle East,"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5, no. 1, 2022.

Xinyue Hu, "China's Global South Strategy: Twice the Efforts for Half the Result?," RSIS, IDSS Paper, No. 108/2024, 2024.12.20.

Zha Daojiong, "China's global south dilemma: Ally, leader or outsider?," ThinkChina, 2025.8.13.

欧阳康·李大鹏, "践行全球治理倡议：以大金砖机制协同全球南方推动全球治理更加健康发展," 爱思想, 2026.3.27.

顾清扬, "China's Global South Strategy: A New Growth Frontier,"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glonal-is-asian, 2025.5.16.

吴明澤, "中國「內捲」原因與「反內捲」政策之效果評析," 經中華經濟研究院, 《經濟前瞻》222期, 2025.11.

刘志刚, "全球倡议谱系：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系统性方案," 爱思想, 2026.3.26.

李景平·李永来, "四大全球倡议的内在联系及其世界意义," 爱思想, 2026.3.18.

傅小强, "四大全球倡议的深刻内涵与时代价值," 爱思想, 2026.3.4.

"중국, 파나마 일대일로 탈퇴 선언에 "美 압박에 협력 파괴", "「연합뉴스」, 2025.2.8.

"China, ASEAN, GCC forge innovative trilateral cooperation amid global risks,"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5.28.

"China 'congela' inversiones en México... y mira hacia Perú: 'Es más receptivo que el gobierno mexicano'," El Financiero, 2025.3.28.

"China says it will remove all tariffs on African exports to boost trade," Reuters, 2025.6.13.

- “China’s Xi meets Russian FM Lavrov, calls relations with Moscow ‘precious’,” Aljazeera, 2026.4.15.
- “China will always be member of "Global South", says Wang Yi,” Xinhua, 2023.7.26.
- “Combining the Great Strength of the Global South to Build Together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10.24.
- “How does China view the US-Israeli war on ally Iran?,” RTÉ, 2026.3.15.
- “For China, Billions of Dollars Are at Risk From a Widening War,” The New York Times, 2026.3.9.
- “Panama voids Hong Kong-based firm's canal port contracts,” BBC, 2026.1.30.
- “Turkey's Erdogan targets joining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media reports say,” Reuters, 2022.9.18.
- “U.S. Blows Up China’s Latin America Ambitions With Maduro Ouster,” The Wall Street Journal, 2026.1.13.
- “US war in Iran: China casts itself as savior of SE Asia,” Deutsche Welle, 2026.3.26.
- “Xi Jinping Holds Talks with Brazilian President Luiz Inácio Lula da Silv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5.13.
- “Xi Jinping Meets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i Lavrov,”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2026.4.15.
- “중국경제원탁회의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수 확대를 발전 전략 기반으로”, 신화망 한국어판, 2026.3.14.
- “首届“南南人权论坛”《北京宣言》,” 新华网, 2017.12.8.
- “李希出席“77国集团和中国”哈瓦那峰会并致辞,”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9.16.

Abstract

China's Global South Strategy in the Xi Jinping Era: Assessment and Policy Implications

Hyunjeong Yoo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Global South strategy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assess its implications. As the Global South emerges as a key actor in the international order, China has sought to utilize it as a strategic foundation for responding to the U.S.-led international system. Through various cooperation mechanisms such as BRIC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China has expanded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Global South countries while promoting a multipolar international order and the diffusion of China's own strategic discourse.

In particular,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expansion of "America First" policies and intensifying geopolitical conflicts, presents both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China's Global South strategy. China is expected to strengthen anti-U.S. and anti-Western solidarity while expanding cooperation in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s. However, differences in interests among Global South countries and concerns over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may serve as major constraints on China's strateg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Global South countries and establish differentiated strategies tailored to specific regions and countries.

Keywords: Global South, BRICS, Economic Security, Supply Chain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e 2026
No. 401